

행복의 웃음, 불행의 눈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평양의 대평지구에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일떠서 새집들이경사를 맞이했다.

며칠전 새시대 평양변영기에 또다시 솟아난 행복의 보금자리에 입사한 삼촌네 가족을 찾은 나는 볼수록 황홀한 사회주의문명의 리상향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시원하게 뻗어간 넓은 도로를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특색있게 조화를 이룬 다층, 고층살림집들과 학교, 진료소, 상점, 목욕탕, 빨래집을 비롯한 각종 봉사시설들, 곳곳에 이채롭게 펼쳐진 원림록지구간들...

밝은 햇살이 비쳐드는 넓은 살림집들과 비직한 부엌, 세면장, 창고 등 살림집의 어느 곳을 돌아보아도 더할나위없이 훌륭하였다.

주변풍치는 또 얼마나 아

름다운가. 레고적부터 친화적으로 일러오는 만경대와 《명양의 금강산》으로 이름 높은 풍악산이 지척에 있고 맛과 수질이 좋은 풍악산샘물이 솟아나 장수자가 많기로 유명한 이곳이 아닌가.

자본주의사회같은 돈 많은 부자들이나 차지할 줄도 없는 평당자리에 평범한 철거세대주민들을 위한 살림집들이 일떠섰으니 생각할수록 가슴이 뜨거웠다.

송전선건설사업소에서 노동자로 일하고있는 삼촌은 나의 손을 꼭 잡고 《우리 원수님의 은덕으로 평범한 노동자인 내가 새 보금자리의 주인이 되었다. 우리 같은 평범한 근로자들을 위해 희한한 살림집을 무상으로 지어주는 나라가 이 세상 어디에 또 있었나?》라고 말하며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이런 진정넘친 목소리는 새집에 입사한 사람들 누구

에게서나 들을 수 있었다.

새집에 보금자리를 편 사람들끼리 작업과 경력은 서로 다르다. 하지만 그들모두는 나라에서 온갖 사랑과 정을 다해 위해주고 보살펴주는 철거세대주민들이다.

이전에 살던 집에 비할바없이 훌륭한 새 살림집을 받아 안고 격정에 눈물을 적시는 그들의 모습을 보느라니 우리 가슴이 로동당시대의 선경처럼 울려서 리명거리의 살림집을 받아안던 때의 광경이 생생히 떠올랐다.

나도 한때 철거세대주민이었다. 리명거리건설을 위해 철거하던 날 나는 살던 집을 보고 또 보며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철거되어 없어지게 될 옛집에 대한 《정》 때문이었던가. 아니었다.

철거세대주민들을 비롯한 수도시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주기 위해 억만급도

아끼지 않는 나라의 혜택이 크고 고마와서였다. 그런 나에게 리명거리건설지휘부의 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현대적인 살림집을 더 많이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려는 것은 우리 당의 뜻입니다. 철거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맛있는 새 살림집을 먼저 지어주겠습니다.》

《철거기간이 길면 어떻게는 겁니까. 더 좋은 살림집을 무상으로 받아안게 되는 것만도 고마운데...》

《걱정마시고 어서 맘편히 떠나십시오.》

그 일군의 말은 나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그때로부터 불과 1년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로서 일떠선 리명거리공공식에 참석하시어 준공예를 끊으시고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과 함께 우리 철거세대주민들에게도 제일먼저 살

림집리용허가증을 수여하도록 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길 어찌 알았으랴.

리명거리가 어떤 거리인가. 우리 원수님께서 직접 구상하시고 건설을 선포하시었으며 몸소 설계가, 시공주, 건설주가 되어서 일떠세워 주신 세계에 둘도 없는 사회주의별천지가 아닌가.

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리명거리의 살림집을 우리 철거세대들에게도 우선적으로 안겨주었으니 하늘같은 은덕이 고마워 우리 은 그 측은 목청껏 《만세!》를 웨쳤다.

철거는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나 있다. 하지만 철거되는 사람들의 처지와 운명은 사회제도에 따라 판이하게 다르다.

우리 공화국에서의 철거, 그것은 넓은 집을 떠나 새집에서의 행복한 생활. 더 좋고 명명한 생활로의 시작을 의미한다.

나라에서 철거세대주민들의 생활을 세심히 보살피며 더 좋은 새집을 지어 무상으로 안겨주시어 우리 사회에서 철거세대주민이라는 말은 복받은 사람의 대명사로 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극소수 특권층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철거민들의 처지는 어떠한가.

권세있고 돈있는자들만의 세상인 남조선에도 도시개발이란 명목으로 벌어지는 철거바람에 한지에 나앉아 지하철도와 역대합실에서 새우잡을 자는 사람들, 움막집, 판자집, 비닐막막집, 짐합집 등 집 아닌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거처할 곳조차 없어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하다.

이들에게 살림을 쉼 보금자리가 언제 생겼는가 하는 것은 기약할 수 없다. 아니 생각조차 할 수 없다.

하지만 당국자들은 철거민들의 불행과 고통, 아픔에 대해 알려고조차 하지 않고있

수필 새 거리에서

《호호호. 정말 그렇구나. 야, 송화거리도 새 거리인데 이제 또 화성거리의 새집으로 시집을? 그리고보니 새 거리에 새 거리로 시집을 가서 새 가정을 이루겠구나!》

《그리고 아기도 낳고... 호호호.》

낮모를 처녀들의 대화이건만 절로 마음이 흥그러워짐을 느끼며 나는 가만히 되뇌었다.

새 거리에서 새 거리에로! 그 한마디 말이 왜 이리도 가슴을 뚫어 놓는 것인가?

세상을 뚫어주는 신화적인 건설속도로 건설의 대변영기가 펼쳐지고있는 오늘의 벽찬 숲길이 가슴에 울려들었고 꿈만 같은 새집들이경사를 맞이하고 터지던 격정의 목소리들이 귀에 울리는 듯 싶었다.

눈부시게 일떠선 인민의 리상향 송화거리에 보금자리를 뒀던 그 기쁨이 채 가라앉지도 전에 또다시 현대건축미를 자랑하며 솟구쳐오른 화성거리의 선경거리로 보금자리를 옮기는 처녀.

나의 눈앞에 화려한 치마저고리를 차려입고 송화거리를 떠난 처녀가 수집은 미소를 띠우며 화성거리의 새집에 들어서서 모습에 방불히 안겨왔다.

그리고 왜서인지 처녀들이 나는 대화의 주인공이 생면부지의 처녀로 느껴지지 않았다.

로동당시대의 부흥과 문명을 상징하며 솟구쳐오른 인민의 새 거리들마다에서 이러한 처녀들, 새 가정을 이루는 철거세대주민들을 날에날마다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다.

깊어지는 생각은 나를 환희의 속보가 오르던 새 거리들의 준공식장으로 이끌었다.

인민과 한 약속,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어갈 결심을 보아야 한다는 송고한

인민관을 지나시고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인민의 리상거리, 사회주의변화건설의 전과정을 이끌어주시던 그 심혈과 로고는 묻어두시고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준공예를 끊으시던 우리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눈앞에 어려웠다.

진정 인민을 위한 길에서 길을 모르는 위대한 아버지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은 전대미문의 시련속에서도 인민의 만복을 위한 새로운 설계도를 편이여 펼쳐졌고 불철주야로 이어가신 위대한선사의 그 자욱 자욱우에 해마다 현대문명이 응축된 새 거리들, 행복의 별천지들이 편이여 솟아올랐으며 사회주의농촌마다에 선경마을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섰다.

참으로 인민의 새 거리, 인민의 보금자리가 늘어날수록 인민의 행복은 나날이 커만 갔고 인민의 리상과 문명의 높이는 더욱 높아졌으며 내 조국의 모습은 세상이 놀랄도록, 우리자신도 믿기 어렵게 천지개벽되었다.

언제인가 신문에서 보았던 자본주의사회의 실상이 아프게 안겨들었다.

집이 없어 세방살이로 시작한 신흥부부가 집을 물지 못해 어떤 때는 2~3달, 어떤 때는 5개월에 한번씩 쫓겨나 2년동안 8번이상 이사집을 싸야만 했던 실상이 글줄마다 스며들어있었다.

새 가정을 이룬 신흥부부에게 있어서 제 집을 가지는 것만큼 큰 소원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신흥부부는 초호화주택들, 돈만 내면 살수 있는 집들이 눈앞에 있었건만 제 집 한방 가져보지 못하고 끝끝내 산같은 빚독촉에 목숨을 팔아야만 했다.

이러한 비극은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 부익부, 빈익빈의 썩고 병든 사회가 낳은

배스가 멈춰서자 서두르며 내린 사람들이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장으로 몰려들었다.

빨간 안전모를 단정히 눌러쓴 처녀들이 나의 앞쪽에서 《빨리 가자!》 하며 종중결을 치더니 내 뒤쪽에서도 대학생총각들이 처녀들에게 뒤질세라 《빨리 가자!》 하면서 걸음을 다그치는 것이었다.

그리고보니 여기저기서 《빨리 가자!》는 소리가 연방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그 말을 듣느라니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장에 지닌나는 내 걸음도 자연히 빨라지는 듯했다.

생활속에서 너무도 귀에 익게 들어오던 《빨리 가자!》는 그 말이 류다르게 들려오는 여기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장.

《빨리 가자!》 단순한 이 말에 어서빨리 건설장으로 달려가 모래 한삽이라도 더 많이 뜨고 한개의 블록이라도 더 나르고싶어하는 청년들의 마음이 깃들여있는 것 아닌가.

건설장에 도착해보니 여기에서도 들려오는 말은 역시 《빨리!》라는 이 말이었다. 빨리 달려라! 빨리 나르자!...

그야말로 뛰고 달리는 모습들이었다.

어떤 단발머리 처녀들처럼 대원도, 나이가 있어보이는 지휘관도, 지휘관은 청년들도 모두가 뛰고있었다.

벽보판에 큼직하게 써있는 《빨리!》는 걷는 자는 걸을 비켜라! 라는 글자를 보아도 청년건설자들의 드높은 열의와 투쟁분배를 알 수 있게 한다.

순간의 답보도 모르고 달리고달리는 우리 청년들의 번개같은 일본새에 아침과 저녁이 다르네,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는 건설장의 모습들이었다.

청춘의 슬기와 기개를 남김없이 펼쳐 조국의 새로운 변영기, 격병기를 안아온 우리 아버지, 어머니세대들이 이룩한 그 창조속도와 일본새가 오늘날 새세대 청년들의 힘찬 맥박속에, 힘찬 발걸음속에 그대로 이어지고있는 것이다.

이런 훌륭한 전통을 이어받은 새세대 청년들이 국가

역할을 하고있는 것이다.

조국의 전진을 앞장에서 떠밀어나가며 더 좋은 레일을 빨리 앞당겨오는 공화국의 미더운 청년들과 가족이나 부패와 범죄로 썩어드는 사회를 더욱더 빠르게 부식시켜나가는 자본주의사회의 청년들.

이들의 판이한 모습에 빠르게 발전하는 점도양양한 내 조국의 찬란한 미래와 암흑속에 방황하며 빠르게 멸망해가는 자본주의사회의 암담한 레일이 비껴갔다.

아름답고 눈부신 레일을 앞당겨주기 위해 하루를 일년맛집으로 세월을 주름잡으며 기적과 위훈을 펼쳐가고있는 공화국의 미더운 청년들.

《빨리 가자!》 이 말은 완공된 거리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실 영광의 그날을 그리며 령도자의 품으로 달려가고 있는 공화국청년들의 불타는 심장의 힘찬 박동소리이다.

그리고 조선로동당의 리상과 녀름을 맨 앞장에서 가장 빨리, 가장 완벽하게 실현해나가는 공화국청년들의 뜨거운 혁명열, 불굴의 투쟁열이 터지는 힘찬 전진의 메아리이다.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실려 우리 공화국의 위창찬란한 레일이 더 빨리 마중오

언어, 말을 떠나 사람들의 생활을 논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언어는 사람들의 사상감정과 정서를 표현하는 데서 없어서는 안될 표현 수단이며 위력한 소통수단이다.

그러나 많이 들었어도 별로 감흥을 주지 못하는 말이 있고 짧은 말속에서도 깊은 공감과 사색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있음을 우리는 생활과정에서 종종 느끼곤 한다.

얼마전 퇴근길 버스에서 나는 우연히 뒤에 앉았던 처녀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참, 너 들었니? 봄향이 사시집간다.》

《정말?》

《새 거리에서 새 거리에.》

《그건 무슨 소리?》

《엔 참, 송화거리에서 화성거리의 새 거리로 시집을 간 말이야.》

투고 《빨리 가자!》

